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백 창 재*

❖ 요약 ❖

최근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 내의 요직과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힘 위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특히 9·11 이후 강경정책들의 배후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되곤 한다.

그러나 누가 신보수주의자이며,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고유한 진단과 처방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된 시각에서 국내·국제 문제를 바라보려고 시도했던 지식인 운동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강경 외

교정책만이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 간에도 대외정책 전반과 구체적인 지정학적 대응방안은 물론 국내 사회·경제·문화 문제들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 다르다. 더욱이 이 문제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계속 변해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신보수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신보수주의가 미국정치 전반과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 본다.

핵심어: 미국외교정책, 신보수주의, 보수주의, 일방주의, 냉전, 탈냉전, 진보주의, 공화당, 부시 행정부, 뉴딜, 레이건 행정부, 외교정책 매파

I. 누가 신보수주의자인가?

최근 미국 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 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언론과 싱크탱크 등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힘 위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국가전략』 2003년 9권 3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과 특히 9·11 이후 강경정책들의 배후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되곤 한다.

그러나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며,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부시 행정부 및 정책 네트워크에 포진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누구인가?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나 포도레츠(Norman Podhoretz),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등 이제는 은퇴했거나 조만간 은퇴할 일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행정부 내의 대표적 신보수주의자로는 국방 차관 울포비츠(Paul Wolfowitz)나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NSC 보좌관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논객으로는 크라우트해머(Daniel Krauthammer)나 케이건(Robert Kaga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로 오해받고 있는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나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신보수라기 보다는 「구보수」(paleo-conservatives) 출신이다. 심지어 신보수의 대부 어빙 크리스톨의 아들이자 공화당 내 신진 보수운동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도 구보수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며,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여겨지던 모니핸(Daniel Patrick Moynihan)도 더 이상 신보수주의 노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한편, 신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잡지들, 예컨대 *Public Interest*, *National Interest*, *Commentary*, *US News and World Report* 등에 기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신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또한 강경한 외교안보정책을 주장하는 매파들이 모두 신보수주의자라는 생각도 오해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신보수주의적 이념 혹은 노선에 있을 것이다. 신보수주의의 내용을 명확히 추출할 수 있다면, 이를 추종하는 자를 신보수주의자로 분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고유한 진단과 처방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된 시각에서 국내·국제문제를 바라보려고 시도했던 지식인 운동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강경 외교정책만이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 간에도 대외정책 전반과 구체적인 지정학적 대응방안은 물론 국내 사회·경제·문화 문제들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 다르다. 더욱이 이 문제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신보수주의가 처음 태동하던 1960, 70년대 이후 계속 변해왔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점차 신보수주의와 구보

수주의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양쪽의 주장들이 흡수, 동화된 영역들이 증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신보수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신보수주의가 미국정치 전반과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 본다.

II.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

신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원래 이 용어는 변절한 진보주의자(liberal)들을 비난하기 위한 호칭으로 좌파들이 사용했다. 따라서 당시의 대표적 신보수주의자들도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기를 혐오했고, 신보수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주장을 담기를 원하지 않았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빙 크리스톨, 포도레츠와 그의 아내 텍터(Midge Dector), 터커(Robert W. Tucker), 모니헨, 글레이저(Nathan Glazer), 커크패트릭, 윌슨(James Q. Wilson), 월담스키(Aaron Wildavsky), 립셋(Seymore Martin Lipset), 에이브럼스 등이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은 주로 뉴욕의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Commentary*나 *Public Interest* 등의 지성지에 글을 기고하며 특정한 지적, 이념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곤 했다.²⁾ 이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이들 대부분이 1930, 40년대에는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진보적 이념에서 출발했다가 1960년대 이후 반진보(antiliberalism)의 기치를 걸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와 트루만(Harry S Truman)

1) Irving Kristol, *Neoconservatives: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Free Press, 1995, pp. 3-9; James Q. Wilson, "Foreward," in Mark Gerson, ed.,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Addison-Wesley, 1996, vii-viii; Mark Gerson, "Introduction," in Gerson,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xiii-xiv.

2) 이들의 연계망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흥미로운 회고로 Kristol, *Neoconservatism*, pp. 3-40을 참조.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정당체계는 민주당 우세-공화당 열세의 구도가 굳어졌고, 특히 동북부 지식인 사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양당의 이념적 성격은 각각 진보주의(liberalism)와 보수주의(conservatism)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진보주의의 정책적 표현은 국내 사회경제적으로는 뉴딜정책이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반소·반공의 봉쇄정책이었다. 이 두 개의 지주가 흔들리게 된 때가 1960년대이며, 그 결과 진보 진영 내에 극심한 균열이 초래되면서 신보수주의라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 시기는 뉴딜이 표상하는 사회·경제·복지 및 인종정책들이 그 한계점까지 급속히 추진된 때이다. 케인즈주의 경기조절정책이 신봉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대되어 갔고, 복지국가의 권한과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인종과 여권 등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이 분출되었고, 이에 따라 진보적 사회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가치와 권위에 도전하는 진보적 문화운동도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봉쇄정책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었다. 이미 1950년대 중반 수정주의 시각에 의해 반소·반공의 냉전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냉전정책에 대한 합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소련이 끝없는 팽창욕구를 지닌 전체주의 국가이며 세계 도처에서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안보가 위협에 처한다는 인식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대외정책상의 균열을 촉발시킨 방아쇠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재정과 인명을 쏟아 부으면서 패전으로 몰리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반전운동이 격렬해지면서, 베트남 전쟁은 물론 봉쇄정책 전체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 이념적으로는 진보진영 내에서 균열이 야기되었다. 국내 개혁의 가속화와 봉쇄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진보세력과, 기존 정책과 질서를 옹호하려는 세력 간에 갈등이 깊어졌던 것이다. 1968년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의 혼란과 뒤따른 대통령 선거의 패배는 양자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편, 대선 패배 후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주도권을 보다 진보적인 세력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맥거번(George McGovern)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평당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당내개혁(예비선거제)을 추진했고,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의 기치 하에 여러 가지 진보적 노선을 채택했

다.³⁾ 더욱이 1972년 선거에서는 맥거번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여 닉슨에게 참패했고, 다시 4년 후에는 카터(James E. Carter)를 민주당 후보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진보파를 급진세력으로 공격하고 이들의 정책과 노선을 조목조목 비판한 진보진영 내의 지식인 집단들이 신보수주의의 원조이다. 포도레츠, 어빙 크리스톨, 글레이저, 모이니핸 등으로 대표되는 이 일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Commentary*와 *Public Interest*의 기고문들을 통해 급진주의로 인해 야기된 정치·사회적 무질서와 안보 무감증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미국사회의 위기를 경고했다.⁴⁾ 이들이 보기에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의 상황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위대한 사회』로 인해 복지국가가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급진적 운동과 사회개혁으로 인해 극심한 무질서가 초래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베트남전의 실패로 미국의 반공·반소정책이 소극화되는 가운데, 소련의 위협에 눈을 감으려는 「희망적 사고」가 팽배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보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이들은 진단했다.⁵⁾ 요컨대 진보주의자들 대부분이 신봉해왔던 뉴딜과 봉쇄에 대한 합의가 1960년대 후반부터 깨졌던 것이며, 뉴딜의 가속화와 봉쇄의 재고를 요구했던 진보(급진)세력에 대항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 뉴딜과 봉쇄의 고수를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수」이 되, 「구보수」와는 출신과 이념성향이 다른 「신보수」인 셈이다.

신보수주의적 사고는 점차 진보주의자들 속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뉴욕과 워싱턴의 학계와 언론계 및 유태계 지식인 사회에서 호응이 커져 갔다.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 시기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민주당을 떠나 공화당으로 옮겨가고 보수주의와 결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카터 행정부 당시 미국경제는 스태

3) 1960년대말-70년대초의 개혁에 대해서는 백창재, 「미국적 정치체도의 장래 I: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제21집(1998), pp. 1-33 참조.

4) 1960년대 후반 이후 신보수주의 지식인들의 논의에 대한 탁월한 정리로 John Ehrman, *The Rise of Neoconservatism: Intellectuals and Foreign Affairs, 1945-1994*, Yal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5) 신보수주의자들은 관료집단과 언론계,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급진주의자의 아성으로 간주했다. 관료집단은 뉴딜의 거대정부를 확대재생산하는 주체이고, 언론은 급진주의를 전파하는 매체이며, 대학 캠퍼스는 급진주의적 사고를 배태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심지어 어빙 크리스톨의 경우, 1950년대 초 매카시즘의 광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사회의 현정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지식인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진보주의자(급진주의자)들을 혐오, 배척했던 것이다. Kristol, *Neoconservatism*, pp. 18-21.

그플레이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뉴딜의 실패를 각인시켰고, 대부분의 국내문제들에 대해 무능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민주당의 통치능력과 정책성향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보수주의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카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었다.

이 시기 카터 행정부는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구하고, 전략핵제한협정을 추진했다. 다른 한편 인권외교를 통해 제3세계의 친미·반공 독재정권들에 압력을 가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기존 냉전정책이 후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76년 민주당 내 예비선거 당시 냉전주의자 헨리 잭슨(Henry Jackson)을 지지했었으며, 카터가 당선된 후 민주당 내에서 더욱 소외되었었다. 여기에 카터 행정부의 대소·대공 유화정책과 인권 외교가 겹치면서 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⁶⁾ 더욱이 카터의 임기 말에 발발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란 혁명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카터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접고 공화당으로 옮겨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소련의 팽창 야욕과 침략성을 재확인시켜주었고, 이란혁명은 제3세계 급진주의로 인해 봉쇄정책이 위협에 빠지는 한편, 중동지역에 극도의 불안정요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양 사태 모두 카터와 민주당 진보파가 시도했던 대외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며, 미국과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들은 진단했던 것이다.

1980년 선거는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이 선거를 계기로 신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신보수주의자들은 일찍부터 레이건 지지를 천명하고 레이저노믹스와 대소 강경정책을 옹호했다. 둘째, 레이건 당선 후 신보수주의자들이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하게 되었고, 특히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신보수주의자들이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지식인 운동에 머물렀다면, 이때부터 정당과 행정부에 참여하여 현실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에켄대 커크패트릭은 UN 대사직을 맡아 대UN외교와 제3세계 정책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에이브람스는 국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되어 니카라구아와 엘살바도로 등 당시 최대의

6) 신보수주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유태계 지식인들에게는, 중동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분위기도 중대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Ehrman, *The Rise of Neoconservatism*, pp. 37-41.

현안이던 중남미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레이건의 초임 4년 간은 신보수주의자들이 마침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시기이며, 신보수주의 운동이 동북부의 지식인 사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소 강경정책이 지속된 데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제공한 논리와 수사(rhetoric), 그리고 이들이 행사한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제3세계 반공 독재체제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커크패트릭과 에이브람스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처방대로 이루어졌다. 국내 사회경제정책이 급속히 신자유주의화(보수화)된 것 역시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자유방임적 질서를 반대하고 뉴딜의 기본원리에 찬성하지만 1960년대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보다 시장중심적 질서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하원과 대립하면서 주어진 정치논리 하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한 레이건 행정부의 현실적 정책노선과 신보수주의가 만나게 되었던 셈이다.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합류하게 되면서 기존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포도레츠와 같은 극단적 신보수주의자들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 정책이 정치적 수사에만 머무를 뿐 실제로는 너무 온건하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⁷⁾ 악의 제국에 대해서는 단순한 봉쇄가 아닌 롤백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외교안보정책은 레이건과 같은 공화당 우파마저도 현실정책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이다. 더욱이 국내정책에 있어서 신보수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했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구보수주의자들이 의혹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동북부 지식인 중심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적 시각도 중서부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대중주의적(populism) 관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치명적 위기가 도래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 소련이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췌프에 의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보다 온건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도, 매력도 없게 되었다. 신보

7) *Ibid.*, pp. 143-145.

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잃게된 셈이다.⁸⁾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들은 문제의식을 확대시킴으로써 오히려 외교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높였다. 1985년 어빙 크리스톨을 중심으로 *National Interest*지를 창간하고, 탈냉전 국제질서의 문제와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전파했던 것이다. 포도레츠의 *Commentary*가 냉전 시기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처방을 설파했다면, 탈냉전 시기에는 *National Interest*가 여전히 그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예컨대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은 이 잡지에 게재된 바 있다.⁹⁾

부시(George Bush)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에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일관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청중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일치된 처방을 쉽게 제시해온 것은 아니다. 일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이상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절제된 개입주의를 주장해 왔다.¹⁰⁾ 반면 여전히 월슨주의적 이상과 소명감을 지니고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적 가치의 전파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혼재해 있었다. 다른 한편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와 같은 이세대 신보수주의자들 중 일부는 탈냉전 국제질서의 단극성이 불가피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도 소규모 후진국가들의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국제적 안보 위협은 여전히,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참여가 없어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2000년 선거 결과 다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인사들 상당수가 부시(George W. Bush) 외교팀에 참여하게 되

8) 이에 대해 포도레츠와 같은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은 소련의 개혁개방과 약화를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기도 했다. *Ibid.*, pp. 174-177.

9)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10) 예컨대 Robert W. Tucker, “Exemplar or Crusader?” *National Interest*, Fall, 1986 참조. 주지하듯이 이러한 입장은 월츠(Kenneth Waltz)로 대표되는 신현실주의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만 신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 전파가 소중함을 인정하고, 언급한다.

11) Charles Krauthammer, “The Price of Power,” *New Republic*, February 9, 1987; “Universal Dominion: Toward a Unipolar World,” *National Interest*, Winter 1989;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1990/1991 참조.

었다. 부시 행정부 초기의 외교정책은 전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고 클린턴의 유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부시 행정부 초기 미국 외교정책에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11과 뒤이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전격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잇따라 두 번의 대규모 전쟁을 치루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후자로 수렴되어 가고 있고, 부시 행정부내에서의 영향력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III.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성격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까지 드러나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정치·사회·경제·문화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이들이 주장이 기존의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에 위치시우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거나 다양해져 왔기 때문이다. 신보수주의가 체계적인 정치 이념인지, 또는 하나의 현실정치적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¹²⁾ 이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일단 신보수주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그 형성 과정상의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신보수주의는 그때 그때의 현실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의 수준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리한 가정이지만, 1960년대 후반 이래 민주당내에서 「새로운 정치」라는 진보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신보수주의라는 이념, 혹은 정치세력이 형성되었을지 의문이다. 1960년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야기한 논란, 민권운동과 인종 문제, 여권운동, 문화적 좌파 운동, 신좌파(New Left)의 대두, 베트남 전쟁과 반전운동이 촉발한 분열, 1970년대의 장기 경제침체, 중동전쟁, 제3세계 혁명들, 냉전과 데탕트, 사회주의의 붕괴, 다문화주의의 도전, 그리고 9·11 등 지난 반세기간 미국사회가 직면했던 중대한 대내

12) 상반된 평가로 Gerson, "Introduction"과 Peter Steinfels,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Simon & Schuster, 1979를 비교하라. 스타인펠스의 책은 국내에 김쾌상 역, 『현대미국지성사』, 현대사상사, 1983으로 번역되었으나, 오역이 너무 많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의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신보수주의가 형성되고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신보수주의의 태생적 한계가 초래되곤 한다. 그때 그때의 현실정치적 대응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보수주의의 주장이 무의미해지거나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점진적 개혁과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지지했는데, 1980년대 이후 공화당 중도파(moderates)와 민주당 보수파(New Democrats)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함에 따라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화당 보수파로부터 의혹을 사거나, 또는 복지국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곤 한다. 「신」보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실제 신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국내 정치경제질서에 대한 시각과 구체적 정책처방에 있어서 더 이상 보수주의자들, 심지어 「신우파」(New Right)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극적인 사례들이 많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소련 붕괴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1980년대 후반에 포도레츠와 같은 「원조」 신보수주의자들은 이 현상 자체를 부인하면서 소련의 위협이 여전하거나 혹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때까지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를 보는 렌즈가 반소·반공주의였기 때문에,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판단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나아가 존재의미를 잃어버리는 셈이었던 것이다. 물론 신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은 탈냉전 시대 「신세계질서」로 목표를 바꾸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태생적 장애를 극복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냉전시대 신보수주의의 반공정책을 정당화해 준 것은 전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수호한다는 사명 의식이었다. 소련과 공산주의를 봉쇄한다는 것은 도구적 차원의 목표일 뿐,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반공·반소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있어야 했고, 전세계적 규모로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확산하는데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탈냉전 단극시대에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신보수주의에 충실한 시각에서라면, 답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이 절제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후퇴했다. 「현실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9·11의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정책관은 다시 한번 역전되었다.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와 같은 위협요인을 「미

리 제거」(preemption)하고 불량국가들에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소명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 좌파, 혹은 미국 지식계의 진보적인 경향에 대응하여 이를 비판하면서 형성되었다.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1960년대에 급속히 이루어져 갔던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고, 1970년대에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던 신좌파 지식인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맹렬히 공격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참여확대를 이루었던 개혁파들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결국 민주당을 포기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베트남전에 대해 재고하려는 움직임과 반전운동을 비판하면서 탈-냉전적 사고를 위협시켰다. 1970년대의 데탕트와 미소 간의 군비제한, 그리고 제3세계 반공 독재 정권에 대한 인권압력을 비난했다.

요컨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상대에 대한 비판들을 근간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가 명성있는 논객이며 이들이 주로 고급 지식인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점이 이들의 공격성과 공격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신보수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나는 점이다. 비판으로만 이루어진 사회이론은 있을 수 없다. 비판의 대상이 사라지면 타당성의 근거도, 존재이유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나아가 신보수주의자들이 점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과 적극적인 대외적 개입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보수주의는 한낱 당면문제들에 대한 임시변통적이고 정략적인 대응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또는 1950년대적 국내 정치경제질서와 국제질서를 그리워하고 이로부터의 변화를 무조건 비판하려던 기득층의 담론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로는 1980년대 후반과 같이 외부로부터 변화가 주어졌을 때 마땅한 대응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의 세 번째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애초에 하나의 일관된 이론이나 이념체계를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회」나 반전운동, 또는 신좌파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비판은 당시 미국사회의 최고급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당시의 신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론과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겠으나, 이들 간에 일치된 사회이론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이를 위한 논의도 없었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양한 이론과 신념들을 수용하며 이들의 접목을 통해 점차 자신들의 사회이론과 세계관을 수립하려고 시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지적 전통은 다양하다. 우선 이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에는 스트라우스(Leo Strauss), 또는 블룸(Allan Bloom)과 같은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평가되곤 한다.¹³⁾ 1960, 70년대의 신좌파운동과 「적대적 문화」(adversarial culture) 혹은 「반문화」(counterculture)에 대한 비판이 이들의 지적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자들은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상주의(utopianism)에 경도된 지식인들이 「신계급」을 형성하고 부당하게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본다. 신계급이 국가기구와 대학을 장악하고 그들의 유토피아적 메시지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관념(ideas)이 현실에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한다. 이 때문에 기성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기본 원리가 붕괴되며,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이 추구되고, 기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의 붕괴로 귀결된다.¹⁴⁾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시각은 니버(Reinhold Niebuhr)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평가된다.¹⁵⁾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이 시도하는 개혁에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따른다는 것이다. 사회공학적 조사나 사회이론에 의해서도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알 수 없다. 하물며 기존 질서를 부인하고 자신의 관념에 집착하는 급격한 사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질서로 보존되어야 하고 점진적 개혁

13)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스트라우스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Natural Right and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Thoughts on Machiavelli*, Free Press, 1958 및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rep.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등이 거론된다. 스트라우스주의자들 중에서는 Allan Bloom의 *The Closing of American Mind*(이원희 역, 『미국 정신의 종말』, 범양사, 1987)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크리스톨은 자전적 에세이에서 스트라우스의 지적 영향을 길게 논의하고 있다. Kristol, *Neoconservatism*, pp. 7-9

14) Robert Devigne, *Recasting Conservatism: Oakeshott, Strauss, and the Response to Post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1944, pp.59-69ff, 127-131.

15)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Niebuhr의 대표적 저작으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Sons, 1932(rep. 1960) 및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Charles Scribner's Sons, 1945를 들 수 있다. Ehrman, *The Rise of Neoconservatism*, pp. 7-14.

16) Wilson, "Forward," vii-ix. 보다 구체적으로 Gerson,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에 실린 주요 신보수주의자들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의와 Kristol, *Neoconservatism*을 참조하라.

이 필요할 뿐 급격한 개혁은 위험스럽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관은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었다. 니버가 보았듯이, 공산주의는 급진주의자들이 자신의 관념에 따라 추구한 급진적 변혁이며 의도되지 않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가 탄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을 빌어 「전체주의」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구분하고,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파멸을 가져올 전체주의라고 단정했다.¹⁷⁾ 전체주의는 개선될 수도 없으며 끝없이 팽창하려는 욕구를 지닌 악의 화신으로 보았던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위협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Vital Center)가 되어야 한다는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의 주장을 신보수주의자들은 신봉했다.¹⁸⁾ 1980년대 후반까지 반소·반공정책에 매달렸던 정당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월슨주의의 영향도 찾을 수 있다. 고립주의에 대한 공격에서 드러나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국제체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고, 냉전 당시에는 롤백까지 주장할 정도였다. 그 동기는 단순히 미국의 안보가 동맹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는 계산이나 도미노 이론에 대한 집착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일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 구보수주의자들 상당수가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인데 비해 신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세계적 확산을 주장했던 것은 월슨의 이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소명의식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적 신조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예외주의는 건국 이전 식민지 시대부터 맥을 이어오며 미국민

17)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rev. ed., Harcourt, Brace & World, 1966.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제3세계 반공 독재정권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옹호하는데도 이용되었다. 대표적으로 Jeane Kirkpatrick,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Commentary*, Nov. 1979.

18) vital center는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의 표현이자 봉쇄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 1949년 저술의 제목이다. Ehrman, *The Rise of Neoconservatism*, pp. 15-16.

19) 월슨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 David Fromkin, *In the Name of Americans: FDR, Truman, Eisenhower, Marshall, MavArthur--The Generation That Changed America's Role in the World*, Alfred Knopf, 1995 참조.

들에게 지적·정서적으로 호소해 왔다. 미국 예외주의는 단순히 미국이 구대륙과 다르고 우월하다는 신념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특수성과 도덕적(혹은 종교적) 우월성뿐 아니라,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 선(자신)을 보존, 혹은 확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에 근거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외교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미국 독립으로부터 건국, 북미대륙과 서반구에서의 팽창, 먼로주의, 양차대전의 참전, 윌슨주의, 냉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저에는 자신과 타자를 미국 예외주의로 구분짓는 시각이 깔려 있었고, 이에 의해 정당화되곤 했다. 요컨대 미국 예외주의는 국제정치 현실과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를 바라보는 하나의 파라이데올로기(para-ideology)로서 「미국의 우월성」, 「선과 악의 대립」, 「미국의 소명」과 같은 관념들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²⁰⁾

신보수주의자들의 국제정치관에서 이러한 예외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을 바라본 이들의 시각, 또는 이들 중 상당수가 유태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과 아랍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존재로 보고 미국 및 동맹국 이외의 존재는 열등하거나 「타락한」(corrupt) 것으로 보는 관념, 소련에서부터 이라크, 북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밖의 적을 찾으려는 의식, 적과의 타협을 일체 부인하고 적과의 투쟁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은 예외주의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메시지에 정치권과 대중들이 호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예외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수 있다.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관념은 윌슨주의와는 달리 현실주의(realism)와 접목된 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힘의 강화만을 강조했던 냉전 시기의 주장은 고전적 현실주의의 전형적인 힘의 균형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연장선에서 일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다수가 냉전 종식 이후 힘의 절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단극적인 힘의 보유는 다른 강대국들로 하여금 균형을 추구하게 만들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현실주의자들의 처방과 일치된다. 반면 일부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탈냉전 초기부터 신세계질서의 새로운 적과 새로운 위협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인 힘의 보유와 적극적인 힘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9·11

20) 미국 외교정책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예외주의에 대한 논의로 백창재,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9:1(2003), pp. 111-134 참조.

이후의 충격 속에서 후자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사회 전반과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진보주의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이론들과 접목시킴으로써 체계적인 틀로 묶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들과 세계관들이 일관되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월슨식 국제주의와 현실주의가 어떻게 혼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개량주의와 예외주의적 소명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미지수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신보수주의자들 각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서로 간에 일치된 시각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보수주의라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유물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현실 문제들에 대한 정파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으로만 간주될 수도 있다.

IV. 신보수주의와 미국정치, 대외정책의 장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 이념에는 국내외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신보수주의의 경계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신보수주의를 이와 가장 대비되는 공화당 구보수주의 및 민주당 진보주의와 비교해서 구분함으로써 정치현실에 투영되는 신보수주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은 구보수주의자들 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편이다. 또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개입을 적극 지지한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신보수주의자들은 보다 작은 정부를 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개입을 지지한다. 요컨대 국내정치(국가-시장)시장에 있어서는 중간 위치에,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개입주의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신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동북부 지식인들의 진보주의에 대항하여 전개한 「문화적 투쟁」(cultural war)이었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적이며 대중정치적 기반은 취약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신보수주의자들이 정치권과 관료집단, 그리고 공화당 내에 입지를 지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구보수주의자들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평가된다.²¹⁾ 윌리엄 크리스톨이 주축이 되어 새로 설립된 「미국신세기계

획』(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과 같은 신보수주의 운동 조직이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같이 신보수주의와 연관된 싱크탱크들까지 감안해도 신보수주의의 현실정치적 세력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신보수주의가 공화당 내 주요 정치세력으로서 미국정치와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최소한 가까운 장래까지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은 그 메시지, 관념(idea)의 힘에 있다. 관념의 힘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말해 왔다.²²⁾ 이 점에 있어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내외 정책에 대한 진보주의의 입장을 공격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제공한 관념은 미국 국내정치경제질서의 보수화와 레이건의 냉전정책에 상당히 기여했던 것이다.

현재 신보수주의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앞에서 논의한 대로 국내정책에 있어서 이들의 메시지는 더 이상 독자적 목소리로 구분되지 않는 듯 하다. 이들 입장의 상당부분이 공화당의 주류 중도파와 민주당의 신민주파에 의해 흡수되었다. 더욱이 전통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관념은 신우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신보수주의 고유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 것이다.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집권 초반과 같은 황금기를 맞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대외정책적 입장만을 일컫는 것처럼 오해될 정도이다. 대외정책 네트워크 내의 많은 강경파들이 자전, 타천으로 신보수주의자로 분류될 만큼 신보수주의적 메시지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²³⁾ 앞에서 논의한대로 탈냉전 시대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 신보수주의자들 내에 일치된 처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론의 여지없이

21) 양자 간의 갈등에 대해 George H. Nash,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Since 1945*, 2nd ed.,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1996, pp. 337-341 참조. 특정 사안에 대해 양자 간에 갈등이 표출되면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구보수주의자들의 의혹이 표면에 드러난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가 1차 이라크전을 마무리지를 당시 신보수주의자들이 후세인 제거를 주장하고 나서자 베이커(James Baker, III) 국무장관은 신보수주의자들은 잡지를 더 파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었다. 또 중동 문제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보수 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커크(Russell Kirk)는 이들의 조국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위협스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 Ehrman, *The Rise of Neoconservatism*, pp. 184-185.

22) Gerson, "Introduction," xiv-xvi.

23) Stephen Fidler and Gerard Baker, "America's Democratic Imperialists," *Financial Times*, March 5, 2003.

9·11의 충격과 분노 때문일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 중 크라우트해머나 케이건(Robert Kagan)과 같이 일방주의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메시지가 9·11 이후의 미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가 내부적으로 일치되고 국내외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신보수주의의 지적 호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정서적 호소력도 충격과 흥분, 불안감의 정도에 비례하여 변할 것이다. 또는 신보수라는 말 대신 네오콘이란 말만 남아서 외교정책의 강경파를 지칭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백창재. 1998. “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제21집.
- 백창재. 2003.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9:1.
- Arendt, Hannah. 1966.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rev. ed.. Harcourt. Brace & World.
- Bloom, Allan. 1987. *The Closing of American Mind*. 이원희 역. 『미국 정신의 종말』. 범양사.
- Devigne, Robert. 1944. *Recasting Conservatism: Oakeshott, Strauss, and the Response to Post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 Ehrman, John. 1995. *The Rise of Neoconservatism: Intellectuals and Foreign Affairs, 1945-1994*. Yale University Press.
- Fidler, Stephen and Gerard Baker. 2003. “America’s Democratic Imperialists.” *Financial Times*.
- Fromkin, David. 1995. *In the Name of Americans: FDR, Truman, Eisenhower, Marshall, MavArthur--The Generation That Changed America’s Role in the World*. Alfred Knopf.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Summer.
- Gerson, Mark. “Introduction.” in Gerson.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 Kirkpatrick, Jeane. 1979.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Commentary*. Nov.
- Krauthammer, Charles. 1987. “The Price of Power.” *New Republic* (February 9).
- _____. 1989. “Universal Dominion: Toward a Unipolar World.” *National Interest*, Winter.
- _____. 1990/1991.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 Kristol, Irving. 1995. *Neoconservatives: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Free Press.
- Nash, George H.. 1996.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Since 1945*. 2nd. ed.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 Niebuhr, Reinhold.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Sons, 1932.
- _____. 1945.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Charles Scribner’s Sons.

- Steinfels, Peter. 1979.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Simon & Schuster.
- Strauss, Leo. 1953. *Natural Right and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Free Press.
- _____. 1988.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rep.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cker, Robert W. 1986. "Exemplar or Crusader?" *National Interest*.
- Wilson, James Q. 1996. "Foreward." in Mark Gerson, ed.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Addison-Wesley.